
말 다듬기와 조어법

시정곤 •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1. 무엇이 문제인가

얼마 전 경기도에서는 ‘한류우드’와 ‘그린웨이’를 조성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다. 아마도 이 말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한류우드는 대규모 문화 관광단지의 이름으로 ‘한류’와 미국 ‘할리우드’를 합성해 만든 이름이며, 그린웨이는 오는 2020년까지 수천억 원을 들여 추진할 자전거 전용 도로의 이름이란다. 영어식 이름이 더 멋있게 보이는지는 몰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대형 사업에 국적 불명의 외국어를 남용하는 것은 참으로 씁쓸한 이야기다. 이런 마음은 어디 필자뿐이겠는가. 경기도가 마련한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시민’이라는 누리꾼(네티즌)은 “한류라는 말도 중국인들이 지은 한자 말이라 썩 마음에 들지 않는데 거기에 ‘우드’까지 붙이니 우스꽝스럽다.”라며 “어설픈 이름을 버리고 대한민국 문화의 힘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바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니,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런데 이런 외국어 남용 사례가 비단 경기도에 국한되겠는가? 주

위로 조금만 시선을 돌려 봐도 무수히 많은 외국어가 눈에 띈다.

“동북아 허브, 디자인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 육성”

“하이 서울 페스티벌, 한류우드, 그린웨이”

“KT, KB, KT&G, SK, LG, SKT, Sky-life”

“KBS 라이브러리, 리얼시트콤, 러브스토리, NG스페셜 해피타임, 논스톱 5”

“위성 DMB, IP-TV, TFT LCD, PDP, OLED, MP3, 플래시메모리”

바야흐로 외국어가 범람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언뜻 보면 어느 나라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고양 문화재단에서는 얼마전 큰 문화 공연장을 만들고 개관식을 했는데 그 공연장 이름을 우리 토박이말로 지어 화제가 되고 있다. 덕양문화체육 센터를 ‘덕양어울림누리’라 하고 야외극장은 ‘꽃메 놀이터’, 아이스 링크는 ‘얼음 마루’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우리말 사용은 공연장 이름만이 아니다. 자리 이름도 특석이나 R석, S석 따위의 한자어나 영문을 쓰지 않고 ‘으뜸자리, 좋은자리, 편한자리, 가장자리’처럼 토박이말을 사용했다고 한다. 고양시는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에 불과하지만, 문화적 수준과 자긍심은 경기도보다 한 수 위가 아닐지…….

2. 왜 다듬어야 하는가

문물의 유입에 따라 언어도 유입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는 1890년경 중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이다. 그러다가 고종 때 손택이라는 독일계 여인이 호텔을 열면서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커피를 팔았다고 한다. 이것이 한국 커피 다방의 시초인 셈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명동 다방이 문화인들의 사랑방이 되기도 했다. 당시에는 커피를 ‘고히’라고 했는데, 이것은 커피의 일본식 발음이다. 커피의 유입 역사는 커피라는 이름의 변천사인 셈이다.

이 점에서 컴퓨터도 예외는 아니다. 초기에 컴퓨터를 ‘(전자) 계산기’라고 불렀다. 컴퓨터의 원어가 **computer**이니 말 그대로 해석하면 계산기로 번역이 가능할 법하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컴퓨터는 계산기가 아닌 컴퓨터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마도 컴퓨터가 단순히 계산을 빨리하는 단순 계산기의 차원을 넘어 그 기능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컴퓨터가 들어오자 관련 용품도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이들을 부르는 명칭도 하나 둘씩 붙어나기 시작했다. 키보드, 디스켓, 하드, 모니터 등을 위시하여 요즘에는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홈페이지 등에 이르기까지 붓물처럼 밀려오는 새로운 용어들은 외래 문물의 유입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신문물의 유입은 더욱 확대되고, 이에 따른 외국어의 범람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이에 대해 모어(母語)에는 그 민족의 오랜 정서와 열이 담겨 있으며, 외국어나 외래어를 모어보다 더 선호하는 것은 문화적 사대주의가 아닌가 하는 식의 당위성을 내세울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당위성만으로는 뭔가 설득력이 부족한 듯하다. 오히려 우리말로 고집하는 것이 세계화에 역행하는 국수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냐는 역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어야 할까? 이에 대해 좀 더 실질적인 이유를 찾아보자.

몇 년 전 독일에선 한 유명 정신과 의사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검찰에 체포된 그는 알고 보니 의대는커녕 고교 중퇴 학력이 전부였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는 10년 넘게 유명 의사 행세를 할 수 있었을까. 비결은 여기에 있다. 그는 우편집배원으로 일할 때 여의사들과 사귀면서 많은 전문 의학 용어를 주워들었고 이를 밀천 삼아 의사로 둔갑했던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 사건은 전문 용어의 특수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전문 용어와 격리되어 있는 일반인, 특수 계층의 전유물이 되어 버린 전문 용어의 실상을 잘 보여 주는 예라 하겠다. 이것이 비단 독일에서뿐이겠는가.

정보화가 진전되고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우리는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졌다. 특히 외국에서 들여온 용어를 일반인이 접하고 바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 지식의 습득과 재생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일반인은 용어만 보고서는 그 뜻을 파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들 용어가 언론에서 아무렇게나 사용되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문제가 사회의 구성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21세기를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라고 한다. 따라서 그 기반이 되는 용어를 쉽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그것이 바로 평등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용어의 우리 말화, 용어의 표준화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어디까지 다듬을까

그렇다면 외국어나 외래어를 얼마만큼 고쳐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 말 순화의 대상을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 하는 점과 관련이 된다. 물론 당장 시급한 것이 영어와 같은 서구어를 다듬는 일이겠으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일본어의 잔재나 어려운 한자어 등도 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일본어의 잔재는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경마도 그중 하나가 아닌가 한다. 경마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에서 일본어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능력을 은폐한 말’을 가리키며 “저 말 가꾸시(←가쿠시, 隠[かく]し) 같은데.”라고 하고, “이번 경주는 땃끼리(←테끼리, てきり) 경주야” 같은 대화는 경마장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경마에 일본어가 많이 남아 있는 이유는 경마가 1922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문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일본 문화가 개방되면서 일본어의 침투가 더욱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만가, 망가(←まんが, 만화)’, ‘아니메(←アニメ, 애니메이션)의 준말, 애니메이션’, ‘야오이(←やおい,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여성 작가가 여성 독자를 겨냥하여 남성 동성애를 다룬, 포르노 소설 내지

만화를 통칭하는 단어. 야마나시[산(절정)이 없고], 오치나시(결말이 없고), 이미나시(의미가 없다)의 앞 글자만 따서 생성된 조어]와 ‘이지메(←いじめ, 집단 따돌림)’, ‘원조 교제’ 등은 물론이고 ‘스고이(←すごい, 대단하다)’, ‘기레이(←きれいだ, 예쁘다)’, ‘가와이(←かわいい, 귀엽다)’ 등의 일본어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하루빨리 일본어의 잔재를 우리말로 다듬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반가운 일은 한자어를 쉽게 고치려는 노력이 최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어려운 한자어 투성이의 유물 이름을 쉽게 고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경상(經床)’은 ‘절에서 불경을 놓고 읽는 작은 책상’으로, ‘빗집(梳函·소함)’은 ‘빗 등 화장 도구를 보관하는 함’으로, 불교 회화인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는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 부처’로 쉽게 풀어 쓸 예정이란단. 이 대목에서는 북한의 말 다듬기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자어나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쓰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 용어도 석실묘(石室墓)는 ‘돌방무덤’, 고분군(古墳群)은 ‘무덤떼’ 등으로 쓰고 있다.

4. 어떤 식으로 다듬을까

그럼 어떤 식으로 외국어나 외래어를 다듬을 것인가? 제일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전문 학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법이다. 물론 과거에도 특별 위원회를 두어 외래어를 다듬어 왔다. 그러나 여기에는 적잖은 문제가 있었다. 전문가는 공들여 말을 다듬어 놓았는데도 정작 사람들이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국어 순화 자료집”에 따르면 ‘computer=전산기/셈틀’, ‘computer game=전산 놀이’, ‘debugging=벌레잡기’, ‘Enter=넣기’, ‘fax=모사 전송기’ 등으로 다듬은 예가 있다. 문제는 일반인이 이들 다듬은 말을 실제 사용하는 횟수는 매우 적어 그야말로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한번 인터넷에서 이들 단어를 검색해 보라.)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다듬은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첫째는 안타깝게도 이미 다듬기에는 너무 확산되어 버린 용어가 있다는 점이다. 컴퓨터, 컴퓨터 게임 등은 이제 더 이상 전문어가 아니라 일반어가 되어 버렸다.

둘째는 다듬는 방식의 문제이다. 이제까지 말을 다듬을 때는 원어의 의미나 기능을 지나치게 고려한 경우가 많았다. ‘debugging=벌레잡기’, ‘Enter=넣기’ 등이 바로 그런 예인데, 이것은 직역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debugging⇒오류 수정/바로잡기’ 등으로 고치고, ‘Enter⇒실행’ 등으로 고치면 더 낫지 않을까. ‘fax’를 ‘모사전송기’로 다듬었는데, 그냥 ‘전송’으로 하면 안 되는지, 또 ‘download=내려받기’, ‘upload=올려주기’ 등도 ‘자료 받기, 자료 올리기’ 또는 그냥 ‘받기, 올리기’ 등으로 바꾸면 어떨지. ‘spam mail’을 ‘쓰레기편지’라고 하지 말고 그냥 ‘쓰레기’라고 하면 안 되는지. 스팸 메일은 결국 전자 우편에서만 사용될 용어이므로 ‘편지’라는 말은 잉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원어를 얼마나 충실하게 번역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도록 우리 식으로 적절히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인터넷 주소의 @를 가리킬 때 ‘앳(at)’ 대신 ‘골뱅이’란 말을 쓰고 있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셋째, 말을 다듬을 때 일대일 번역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얼마 전 국립국어원에서는 ‘방카쉬랑스’(bancassurance)를 ‘은행연계보험’이라고 다듬은 일이 있다. 이 말은 프랑스어로 은행이라는 뜻의 ‘뱅크’(banque)와 보험이란 뜻의 ‘아쉬랑스’(assurance)가 합성된 말이다. 따라서 ‘은행연계보험’이라는 말이 원래 의미를 잘 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방카쉬랑스 상품은 은행뿐 아니라 우체국, 농협 등과 같은 금융권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은행보험, 우체국보험, 농협보험’ 등으로 다양하게 고쳐 부르는 것이 더 현실적이 아닐까. 현실감 없는 일대일 직역식의 다듬은 말은 일상생활에서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5. 조어법이 왜 필요할까

이러한 시점에서 용어 다듬기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이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http://korterm.or.kr>)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 개설된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 말터(www.malteo.net)이다. 전자에서는 학술적인 전문 용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또 전문 용어의 국어학적 분석을 통해 지금 사용되고 있는 전문 용어의 조어 유형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외래 용어를 어떻게 다듬어 써야 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물 용어의 경우 조어 유형은 [명사+명사](Abdominal fin: 배-지느러미), [명사](Aberration: 변이 [變異]), [명사+접사](Absorbance: 흡수-도[吸收度])의 순이며, 생물학의 경우 한자 용어가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순수 고유 용어는 2%에 불과하다. 또한 경제학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접사는 ‘적(的)’이며, 물리, 생물, 화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접사는 한자어 접사 ‘성(性)’이라는 점도 쉽게 알 수 있다. 학술 전문 용어는 거의 모두 일제 잔재라는 말이 있다. 학술 언어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전문 용어는 이제라도 제대로 번역되어야 한다. 전문용어센터가 이 일에 훌륭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전자가 학술 용어에 대한 전문가의 말 다듬기라면, 후자는 일반 용어에 대한 일반인의 말 다듬기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국립국어원이 동아일보와 손잡고 시작한 이번 말터 사이트는 말 다듬기를 기존처럼 전문 학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하겠다. 전문가가 만들어 놓고 ‘사어’가 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사용하기 쉬운 우리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두 달 만에 수천 명의 회원이 생겼다니 말 다듬기의 열정은 기대 이상이다. 다듬은 말을 몇 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리플(reply)=댓글, 웰빙(well-being)=참살이, 터프가이(tough guy)=쾌남아,
스팸 메일(spam mail)=쓰레기편지, 네티즌(netizen)=누리꾼,

내비게이션(navigation)=길도우미, 빅 리그(big league)=최상위연맹,
오프라인(off-line)=현실공간, 파파라치(paparazzi)=몰래제보꾼,
퀵서비스(quick service)=늘찬배달

다듬은 말을 보면 하나하나가 참신하다. 특히 일반인이 직접 선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용어 후보를 선정할 때, 조어 정보를 비롯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터프가이의 경우, 총 412건의 제안 가운데 최종 후보로 쾌남아, 박력남, 수럭남(‘수럭’은 ‘보기에 말이나 행동이 씩씩하고 시원시원한 데가 있다’를 뜻하는 ‘수럭스럽다’의 어근), 보리남아(보리처럼 투박하지만 야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남자), 야성남 등을 선정했는데, 박력남의 경우는 국어 사전에 [박력+X]의 예가 거의 없다는 점, [X+남]의 경우 대부분 2음절 어라는 점, 야성남의 경우는 이에 대응되는 야성녀라는 말이 사전에 있다는 점, 수럭은 혼자 쓸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쾌남아는 이미 사전에 존재하는 말이라는 점 등을 미리 알려 주면 어떨까 한다.

또한 ‘웹빙’을 ‘참살이’로 다듬었는데 여기서도 후보로 ‘참살이’, ‘튼살’, ‘잘살이’, ‘행복찾기’, ‘금빛’ 등이 제시되었다. [참+X]의 예로는 ‘참깨, 참기름, 참깎질’ 등이 있으며, [X+살이]는 205개 어휘에 이를 정도로 생산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 [부사+살이]의 예는 매우 드물다는 점(막살이), ‘튼살’은 혼자 쓸 수 없다는 점 등이 제시되면 어떨지. 또한, ‘리플=댓글’의 경우에도 댓글(對-), 답글(答-)의 경우는 [한자어+고유어]의 결합이지만, ‘댓글’은 고유어의 결합이라는 사실도 제시해 주면 더 좋겠다. 이런 추가 정보를 통해 사람들은 되도록 우리말 조어법에 맞는 말을 만들 것이고, 선정된 말도 더 우리말다운 말이 되지 않을까.

끝으로 이와 관련하여 한 독자의 제안을 소개하면서 글을 마칠까 한다. 한 독자는 ‘클럽=붙임쇠’, ‘편치=뚫쇠’, ‘스테이플러=박음쇠’로 고치자는 의견을 보내왔다.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쇠붙이 관련 도구를 우리말의 ‘쇠’를 사용하여 다듬어 보자는 것이다. 매우 흥미로운 생각

이며, 이러한 제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 다듬기는 더욱 힘을 얻어 갈 것이다. ‘쇠’는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사 어간과도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꺾쇠, 걸쇠) ‘뚫쇠’를 굳이 ‘뚫음쇠’로 고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나아가 같은 부류인 ‘압정’도 ‘누름쇠’ 정도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누리그물(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외래어가 많이 유입되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덕분에 우리의 말 다듬기 운동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는 수많은 누리꾼들이 말 다듬기에 동참할 것이며,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많이 만들어 낼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다듬은 말을 실생활에서 자랑스럽게 열심히 쓰는 일이 아닐까.

| 참고 문헌 |

시정곤(1994), “국어의 단어 형성 원리”, 국학자료원.

조오현 외(2002), “컴퓨터 통신 언어 사전”, 도서출판 역락.

최용기(2003),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 국립국어연구원.